

미국과 한국을 위한 특별기도 33 (01/19/2025)

작성자: Dr. 김정한선교사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시편 33:12)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권세와 지도자를 세우시는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의 지도자로 다시 한번 서게 될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의 아버지 앞에 나아갑시다. 2025년 1월 20일, 내일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취임식을 거행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지도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의 마음이 항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주님, 트럼프 대통령이 성경의 원리 위에 미국을 다시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정책과 법을 세울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소서.

미국을 성경에 기초하여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들인 마약과 동성애, 동성결혼, 성전환, 낙태문제를 없애는 강력한 크리스찬 지도자가 되시고 악과 타협하지 않는 대통령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나라로 이끌며 차세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건강한 사회와 국가를 만드는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또한 미국이 한국의 우방국가로 한국의 현재의 어려움을 진정으로 돕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협력하여 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도력이 있게 하소서. 특히, 이번에 한국에서 터진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며, 한국을 위해 진실을 밝히고 도와줌으로 곤경에 빠진 윤석열대통령이 복귀하여 한국의 악을 청소하도록 돕는 진정한 우방국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미국의 교회들이 더 이상 국가 정책으로(어느 정책이던지) 방해받지 않고, 더 많이 더 열심히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위해 힘쓸 수 있도록 도우소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의 건강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강건함과 보호하심으로 그들을 붙들어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히 서게 하소서.

트럼프 대통령이 매주 신실하게 교회 예배에 참석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삶을 새롭게 하고, 기도와 경건으로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국방부의 정부의 모든 요인들이 한마음과 한뜻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하며, 미국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울 수 있도록 도우소서.

미국의 차세대가 더욱 기독교 신앙으로 복회하고, 음란과 부정부패를 막아내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울 수 있는 사회정책, 문화정책, 교육정책들을 펼칠 수 있는 지도자로 사용하소서.

하나님, 이 모든 기도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미국의 지도자,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지도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가 모든 일에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게 하소서.

내일 대통령 취임식에 그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취임식에 함께하는 모든 국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은혜를 받는 자리가 되게하시고 그를 위해 진정으로 축복하는 기도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국을 더욱 축복하시고 세계에 진정한 리더국가로 사용받게 하시고 더 많은 미국의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이 트럼프대통령을 위한 기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트럼프대통령을 기름부어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